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일중독 성향이 근로자의 건강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일본 근로자들의 일중독 성향과 성과몰입의 특이성

Is Workaholism Good or Bad for Employee Well-being? The
Distinctiveness of Workaholism and Work Engagement among
Japanese Employees

Akihito Shimazu¹ · Wilmar B. Schaufeli²

¹Department of Mental Health,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Medicine, Tyoko, Japan,

²Department of Soc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Utrecht University, Utrecht,
The Netherlands / Industrial Health(2009), 47.

목적 : 이 연구는 일본 근로자의 일중독 성향 및 성과 몰입과 안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일중독 성향과 성과 몰입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 일본의 일개 건축장비 회사의 생산직, 일반직 전체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담당자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95%가 회신하였다. 일중독 성향은 Dutch Workaholism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성과 몰입은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일반적 특성, 심리적, 신체적 건강결과 특성은 구조화된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자료분석은 AMOS 7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일중독 성향은 건강하지 못함(심리적 고통, 신체적 증상 호소), 낮은 직업과 가족 만족도와 낮은 업무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대조적으로 성과 몰입은 긍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건강결과, 높은 삶의 만족도와 업무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나이, 성별, 근무부서와 같은 특성들은 일중독 성향이나 성과 몰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일중독 성향과 성과몰입은 약한 순방향의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일중독 성향은 근로자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 몰입은 근로자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중독 성향을 감소시키거나 성과 몰입을 증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녕 증진을 위한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